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권고하여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네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누구인가? 어떻게 그분은 그런 배타적이고 강력한 요구를 하실 수 있으신 것인가?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에게 지금 여기서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지를 깨닫는 축복이 있기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셨는가? 그리고 그 의미는?



자기의 이름을 밝히시고 두 번째 부연하여 설명하신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지금 왜? 무엇을 모세에게 명령(약속) 하고 계시는가?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모든 존재물의 근원되시는 존재 자체이다.(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이 이것을 말한다) 그렇기에 사실상 그 밖에는 신이 없는 것이다. 또한 그분은 지금 이스라엘을 권고 하시며, 그들의 아픔을 보시고 느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약속(명령)을 주시고 계시는 인격적인 분이시다. 결국 이런 존재 자체이셔서 유일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인격이신 그분 외에 우리가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은 헛된 것이며 그것은 당장은 우리를 위함인 것처럼 보이나 결국 우리를 얽매게 하는 우상 숭배라는 것이다. 당신이 오늘 믿고 따르며 교제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과 교제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즐겨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당신의 기대와 필요를 따라 헛된 신을 만들고 있는가? 오늘 하루 당신의 삶 가운데 참된 하나님 당신의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시며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좇아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찌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왜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숭배를 하며 다른 신을 만들게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들의 있는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문제들을 해결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나타나며, 그것이 정당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원래 우리가 하나님에게 취해야 할 태도를 본문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의 지금 상태는 무엇이며 그 상태에 따르는 결과를 본문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그분을 우리가 충분히 알고 따를 수 있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주인이 되어 보려고 자신의 지혜를 가지고 다른 조건들을 다스려서 살아보려고 계획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과정 가운데 결국 우리가 처하게 되는 현실은 우리가 삶의 수단과 조건으로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 대신 오히려 섬기게 되고 그것들의 노예가 되어 버리는 참혹함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명령은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시려는 하나님의 배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다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참 신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과의 교제 안에서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라! 당신의 오늘 삶이 이런 참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이 되길 축복한다.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 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 할꼬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아 지이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이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된 우리들의 실상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것이 옳지 않음을 알고도 왜 그렇게 계속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일까?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결과들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깊게 묵상함으로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주인이 포도원 소출을 받기 위해 보낸 종들에게 농부들이 한 일은 무엇인가?

세 명의 종들이 거저 돌아오게 되자 주인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며 기대는 무엇이었는가?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에게 행한 일은 무엇 Evergreen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주인의 최종 판단은 무엇이며 그 반응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나?

예수님께서 비유 끝에 내리신 결론은 무엇인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영광을 취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심각한가를 오늘 비유는 보여준다. 또 한 가지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이러니 하게도 자신들이 행한 행동의 심각성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내가 그 결과의 참혹함에 대해서는 얼마나 받기를 두려워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심판은 죄의 마땅한 결과이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속성상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우리들의 모습으로는 '진멸됨' 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히 기억해야만 할 것이다.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더 한다' 는 바울의 고백은 죄의 심각성을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또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와 같이 묵상되어야 할 말씀이다.